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독점 '동조자' 결국 총성을 울린 대위! 박찬욱 특유의 블랙코미디와 긴장감으로 3화 만에 몰입감 최고조!

2024. 4. 30.

2024. 04. 30. - '동조자'가 3화가 공개된 29일(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파트롤(FlixPatrol) 기준 20개국 1위에 등극, 글로벌 TV Shows Top10 부문에서 2주 연속 TOP 10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난 29일(월) 공개된 3화에서는 박찬욱 감독 특유의 색채가 묻어나는 장면들이 펼쳐지며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했다. '소령' 암살 순간부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네 캐릭터가 한 번에 등장하는 장면까지 박찬욱 감독만의 블랙코미디가 돋보였다.

3화는 미국에서 '대위'의 이중첩자 활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대위'는 두더지 색칠로 혈안이 오른 '장군(또안 레, Toan Le)'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소령'을 암살하고 계획이 끝나자마자 CIA 요원 클로드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는다.

'동조자' 3화에서는 박찬욱 감독이 강조한 두 개의 이데올로기의 부조리한 공존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미국을 상징하는 '하원 의원'이 베트남 난민들의 파티에 참석해 "베트남 만세"를 외치는 동시에 미국 우월주의를 주입시키는 모습이나 '소령'을 죽인 '대위'에게 장례식에서 읽을 추도사 작성을 지시하는 비열한 '장군'의 모습은 풍자의 극치였다.

한편 이후 에피소드를 이끌어 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새로운 캐릭터 '작가주의 감독'은 베트남전 배경의 영화를 제작하면서 '대위'에게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고 그와의 대립각을 세우며 이후에 어떻게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지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3화까지 공개된 '동조자'는 단순히 스파이 첩보물을 넘어서 장르적 비유와 문학적 층위를 통해 두 개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갈등하는 주인공 '대위'의 모습을 박찬욱 특유의 블랙코미디로 보여주면서 더욱 재미가 배가되고 있다.

쿠팡플레이 독점 HBO 오리지널 리미티드 시리즈 '동조자'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1화씩 공개되며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다.

[REVIEW]

★★★★★

경계선 칼날 위에 선 자의 딜레마가 역사의 허망한 수레바퀴 아래에서 시종 흥미롭게 도드라진다 - 이동진 평론가

'동조자', 박찬욱에게 동조된다 - 스포츠경향 이다원

흡입력이 대단한 작품 - MTN뉴스 천윤희

동병상련 역사에 담아낸 아이러니 영화 같은 서사의 깊이와 완성도 - 뉴스1 장아름

스파이의 모순 그린 박찬욱의 탁월한 시선 각기 다른 인물을 연기하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연기 쇼' - 맥스무비 조현주

박찬욱 감독의 톤이 확실하게 묻었다 탄탄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연출적인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 - 더팩트 최수빈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행동하게 만들 것이다 - IndieWire

대담하고 야심차고 눈부신 TV 시리즈 - TIME Magazine

올해 HBO의 최고 작품 - Inverse

단연코, '동조자'는 클래식이 될 것이다 - Collider

냉소적인 유머를 독심 있게 진심 있는 탐구로 완성시켰다 - Paste Magazine

주제의 무게를 잘 담아낸 블랙 코미디 - TV Guide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